



중국리포트

KMI CHINA REPORT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중국연구센터 (Korea Maritime Institute China Research Center)
 中国上海市 长宁区 遵义路 100号 南丰城 A-1803
 Tel. +86-21-6090-0395~6, Fax. +86-21-6090-0397

제19-17호
 2019년 9월 16일

CONTENTS

- ▶ 통계로 보는 중국 수산 : 2018년 중국 국가별 수산물 수입현황
- ▶ 이슈 포커스 : 중국 새우-해삼기업 성공사례 및 시사점 - 2019상하이 국제어업박람회 참가기업을 중심으로
- ▶ 동향 & 뉴스

2018년 중국 국가별 수산물 수입현황

(단위 : 만 톤, 억 달러, %)

국가	수입량	증가율 (%)	수입액	증가율 (%)
러시아	116.12	8.24	22.17	42.85
아세안	84.24	30.01	21.98	54.09
페루	88.58	-10.16	14.81	-0.89
미국	44.26	-16.94	14.23	-5.49
캐나다	11.90	3.70	10.13	34.45
칠레	20.00	8.33	7.17	19.95
호주	1.75	25.38	6.80	115.11
노르웨이	17.58	-11.52	5.87	23.82
에콰도르	10.79	36.67	5.34	177.97
EU	14.08	7.52	4.39	38.5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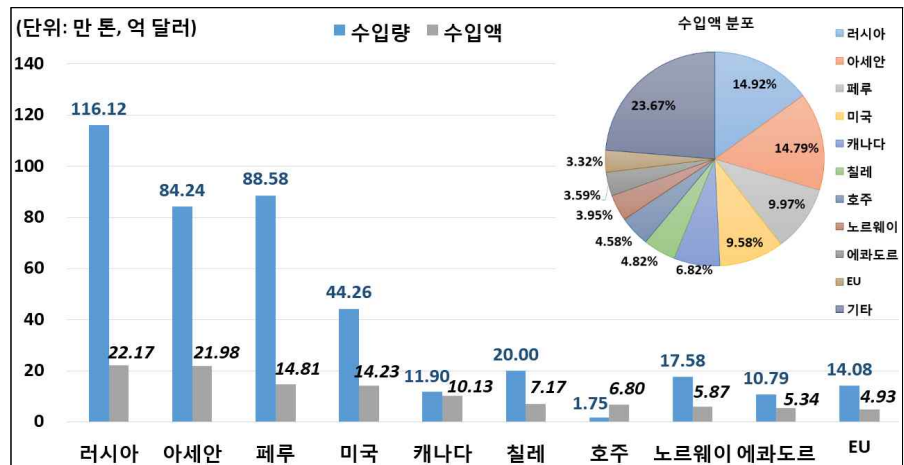
주 : 증가율은 전년대비 증가율

자료 : 중국 수산물 수출입통계연감

중국리포트 내용의 일부 혹은 전체를 인용하실 경우, 자료원을 「KMI 중국리포트」로 표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Copyright © KMI All Rights Reserved.

통계로 보는 중국 수산 : 2018년 중국 국가별 수산물 수입현황



자료 : 「중국 수산물 수출입통계연감」 2018년 통계를 바탕으로 KMI 중국연구센터 작성

2018년 중국 수산물 수입량·수입액 증가

중국 수산물 수출입통계연감에 따르면 2018년 중국 수산물 수입량이 522만 2,200톤이었고, 수입액이 148억 6,100만 달러로 전년 동기대비 각각 6.6% 및 31.0% 증가했다. 중국의 수산물 최대 수입국가는 러시아로 수입량은 116만톤, 수입액은 22억 달러이다. 이는 전년 동기대비 각각 8.2% 및 42.9% 증가한 수치이다. 전년동기 대비 수입액 증가율이 가장 높은 국가는 호주와 에콰도르로 전년동기 대비 각각 115.1%, 178.0%를 증가율을 기록했다.

중국 수산물 수입량 및 수입액이 증가하는 주요 원인은 수산물 수입관세의 하향조정 및 '일대일로' 전략의 추진으로 분석된다. 중국은 2018년 7월 1일부터 양식, 어획 수산물의 평균 수입관세율을 15.2%에서 6.9%까지 하향조정했다. 이를 통해 수산물 수입을 추진하면서 국민이 고품질 수산물에 대한 소비수요를 충족시켰다. 또한, 중국은 일대일로 정책을 추진하면서 여러 국가와 FTA계약을 추진해왔는데, 칠레, 싱가포르와 「자유무역협정 업그레이드 의정서」를 체결했고, Eurasian Economic Union과 「경제무역협력 협정」을 체결하면서 무역편리화를 강화하고 있다. 한편 수산물 밀수에 대한 단속 강화 역시 수산물 수입 증가 요인으로 분석된다. 특히 에콰도르 흰다리 새우의 경우 밀수가 감소하면서 합법적인 수입량이 많이 증가했다. 이에 따라 대 에콰도르 수산물 수입액이 대폭 증가했다. 현재 국제시장이 불안정 하지만 중국 소비자의 구매능력 및 소비수요 증가 때문에 수산물 수입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CONTENTS

- ▶ 통계로 보는 중국 수산 : 2018년 중국 국가별 수산물 수입현황
- ▶ 이슈 포커스 : 중국 새우·해삼 기업 성공사례 및 시사점 - 2019상하이 국제 어업박람회 참가기업들을 중심으로
- ▶ 동향 & 뉴스

지수 동향

CHINA CONTAINERIZED FREIGHT INDEX

구분	01-04	09-12
종합지수	841.78	823.83
일본 향로	706.33	719.16
구주 향로	1,075.74	989.91
미서부 향로	719.47	689.28
미동부 향로	894.38	882.89
한국 향로	595.61	580.92

주 : '01-04' 2019년 1월 4일 지수
자료 : 상하이항운교역소

CHINA COASTAL BULK FREIGHT INDEX

구분	01-04	09-12
종합지수	1,067.11	1,095.28
석탄	1,096.03	1,127.90
곡물	923.87	978.43
금속광석	1,040.00	1,012.14
정유	1,310.58	1,475.59
원유	1,557.48	1,557.48

자료 : 상하이항운교역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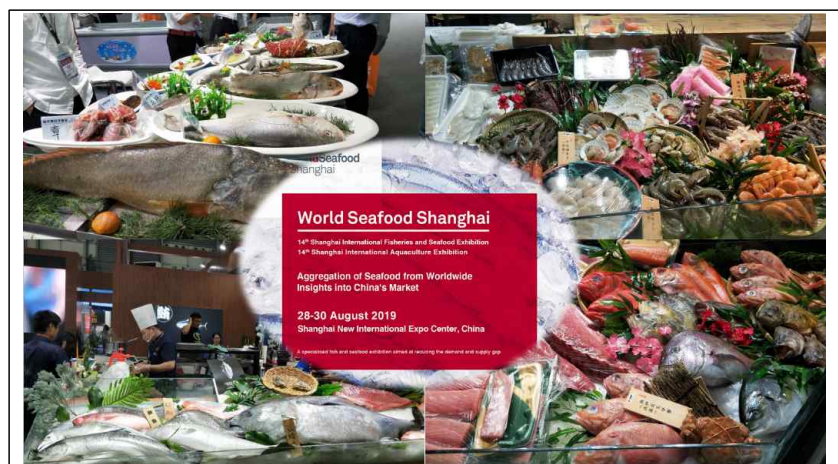
이슈 포커스 : 중국 새우·해삼 기업 성공사례 및 시사점 - 2019상하이 국제 어업박람회 참가기업들을 중심으로

1 상하이 국제 어업박람회(World Seafood Shanghai) 소개

중국 공상업연합회수산업상회(China Aquatic Production Chamber of Commerce), 상하이 수산행업협회(上海水产行业协会) 및 상하이 에거전시서비스유한회사(上海艾歌展览服务有限公司)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제14회 상하이 국제어업 박람회(World Seafood Shanghai)가 2019년 8월 28부터 30일까지 상하이에서 개최되었다. 상하이 국제어업박람회는 2006년에 처음으로 개최되어 올해가 14번째이다. 제14회 상하이 국제어업박람회에서는 약 2,000개 수산가공회사의 전시 부스가 개설되었고, 관람객은 약 65,000명으로 집계되었다.

박람회 참여 업체는 중국 국내 업체 및 미국, 한국, 호주, 아르헨티나, 노르웨이, 스페인, 칠레, 에콰도르, 베트남, 태국, 파키스탄, 캐나다, 프랑스, 싱가포르, 인도 등 20여 개 나라에서 온 유명 수산식품가공업체들이다. 전시된 품목은 양식 수산물, 가공수산물, 조미식품, 즉석 수산식품, 원양산 수산물, 콜드체인, 전자상거래 및 관련 가공 시설 등 수산식품 관련 여러 분야 품목이다. 상하이 국제어업박람회는 수산분야 거래업체 및 해외 기업들이 중국시장을 개척하는 중요한 플랫폼으로서 중국 수산시장의 동향과 세계 주요 수산식품 동향을 파악하는 데 있어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그림 1] 상하이 국제 어업박람회 현장사진



자료: KMI 중국연구센터 촬영

2 중국 새우 산업 현황 및 기업 성공사례

1. 중국 새우 산업현황

중국은 세계에서 해산물 소비대국으로서 국민소득이 증가하면서 1인당 수



CONTENTS

- ▶ 통계로 보는 중국 수산 : 2018년 중국 국가별 수산물 수입현황
- ▶ 이슈 포커스 : 중국 새우-해삼기업 성공사례 및 시사점 - 2019상하이 국제어업박람회 참가기업을 중심으로
- ▶ 동향 & 뉴스

산물 소비량도 계속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해외시장에 수산식품을 수출하는 중국 업체들이 자국 국내시장으로 공급을 전환하고 있으며, 중국의 수산물 수입량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특히 어류를 제외하고 가장 많이 선호를 받고 있는 새우의 소비량도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이 중 대하의 소비량이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는데, 2017년에 중국 대하 소비량은 약 180만 톤을 초과했다.¹⁾

중국에서 어획된 자연산 새우의 주요 품종은 젓새우, 참새우, 꽃새우 및 갯가재이다. 바닷새우 양식 품종은 주요 흰다리새우, 블랙타이거, 대하, 보리새우이다. 이 중 흰다리 새우의 양식량이 가장 많다([표1] 참조). 중국에서 새우의 주요 양식지역은 광둥성(广东省), 광시자치구(广西壮族自治区), 산둥성, 하이난성(海南省), 푸젠성(福建省) 등이다. 「2019년 중국 어업통계연감」에 따르면 2018년 중국 바닷새우 양식생산량이 141만 톤 정도였는데, 광둥성의 양식생산량이 51만 톤으로 전국 총생산량의 약 36.2%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광둥성 잔장시(湛江市)는 100개 이상의 대·중형 대하 가공공장이 위치하여 ‘대하의 도시’라 불리고 있다. 잔장시 대하 가공공장들은 주로 미국, 유럽, 일본, 러시아, 호주, 멕시코, 캐나다, 한국 등 해외시장으로 생산된 제품을 수출했지만, 국내시장 수요 증가와 해외시장 불안정으로 인해 중국 내수시장으로 방향을 전환하고 있는 상황이다.

[표 1] 2018년 중국 바닷새우 생산량

단위: 만 톤

품목	양식 품종				자연산 품종			
	흰다리 새우	블랙타이거	대하	보리새우	젓새우	참새우	꽃새우	갯가재
생산량	111.75	7.54	5.58	5.52	42.52	22.31	24.50	22.06

자료: 「2019년 중국 어업통계연감」 통계를 바탕으로 KMI 중국연구센터 작성

여기에서는 광둥성의 대표적인 새우기업인 광둥 Blue Shrimp 해산물유한회사(广东蓝虾海产品有限公司) 및 광둥 Rainbow 수산개발주식회사(广东虹宝水产开发股份有限公司)의 현황 및 성공요인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2. 광둥 Blue Shrimp 해산물유한회사(广东蓝虾海产品有限公司)

1) 회사 개요

광둥 Blue Shrimp 해산물유한회사(이하 광둥블루새우회사로 약칭)는 2008년에 창립되었고, 새우제품의 개발, 생산, 판매, 수출입을 통합하는 기업으로서 광저우(广州), 베이징, 상하이, 정저우(郑州), 청두(成都), 샤먼(厦门)에 물류창고를 가지고 있다.

광둥블루새우 회사는 세계에서 직접 원재료를 구매하고 위탁가공의 형식을 통해 새우를 가공하여 수출한다. 또한 광둥성 양장(阳江)에서 중국국내시장용

1) 「2019년 중국대하시장 분석보고」, <http://baogao.chinabaogao.com/shuichangqilei/403148403148.html>

CONTENTS

- ▶ 통계로 보는 중국 수산 : 2018년 중국 국가별 수산물 수입현황
- ▶ 이슈 포커스 : 중국 새우-해삼기업 성공사례 및 시사점 - 2019상하이 국제어업박람회 참가기업을 중심으로
- ▶ 동향 & 뉴스

‘Blue Shrimp’ 프리미엄 새우제품의 생산기지를 설립했다. 가공공장의 연평균 생산능력이 2만 톤이고, 냉동 창고의 저장능력은 4만 톤에 달한다.

최근 몇 년 동안 블루새우 회사는 수출 경쟁력을 확보하면서도 홍콩, 일본, 한국, 캐나다 지역 등으로 자사 제품을 수출되고 있다. 아울러 중국 내수시장 까지 적극적으로 개척하고 있으며, 그 결과 동사의 새우제품은 중국 국내 수산 업계에서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동 회사의 주요 생산 제품은 흰다리새우 살, 삶은 새우, 손질 새우(머리 제거), 얼룩새우 살, 튀김 새우 등 냉동제품이다.

[그림 2] 박람회 현장사진 및 가공공장, 제품사진



자료: 광동 Blue Shrimp 해산물유한공사 홈페이지, <http://www.blueshrimpgz.com/>

2) 성공요인

광동블루새우회사의 성공 요인은 제품개발 다양화 및 중국 국내시장 개척이다. 광동블루새우회사에서 다루고 있는 수산가공품은 새우밖에 없지만, 새우를 활용하여 여러 가지 상품을 개발하는 등 제품 다양화를 추진해왔다. 제품의 원료로 사용되는 품종은 흰다리 새우, 얼룩새우, 아르헨티나 분홍새우 등이고, 이로 부터 다양한 유형의 제품이 개발되었다. 초벌가공의 새우 살, 삶은 새우, 손질새우(머리 제거)뿐만 아니라, 정밀 가공된 새우제품도 많다. 예를 들어 새우만두, 새우 스틱, 새우튀김, 치즈 새우, 파인애플 새우 등 다양한 품목이 개발되었다. 이는 새우의 가치사슬을 확장시키면서 제품의 부가가치를 높여 이윤을 창출하고 있다.

광동블루새우회사는 2008년부터 새우제품을 수출하기 시작했는데, 2015년부터는 중국 내수시장의 잠재력을 간파하고 내수시장으로도 진출하기 시작했다. 새우 가공 공장 투자를 늘리고, 전국 대도시에서 판매 네트워크를 구축하였다. 광저우(广州), 베이징, 상하이, 정저우(郑州), 청두(成都), 샤먼(厦门) 등 지역에 영업소 및 냉동창고를 설치했다. 광동블루새우회사는 중국 내수시장의 확대와 잠재력을 재빨리 간파하여 새우시장의 국내외 트렌드를 반영하여 기업



CONTENTS

- ▶ 통계로 보는 중국 수산 : 2018년 중국 국가별 수산물 수입현황
- ▶ 이슈 포커스 : 중국 새우-해삼기업 성공사례 및 시사점 - 2019상하이 국제어업박람회 참가기업을 중심으로
- ▶ 동향 & 뉴스

의 경영 방향을 바꾼 것이 성공한 것이다.

3. 광둥홍바오수산개발주식회사(广东虹宝水产开发股份有限公司)

1) 기업 개요

광둥홍바오수산개발주식회사(이하 광둥홍바오회사로 약칭)는 1985년에 창립되었고, 중국 내수시장에서 성장한 후 해외시장을 개척하였다. 현재 일본, 한국, 캐나다, 미국 등으로 제품을 수출하고 있다. 광둥홍바오회사는 양식, 가공, 국내 판매, 국제무역을 통합하는 종합기업이다. 동사는 광둥뤄환수산유한회사(广东绿环水产有限公司), 신흥바오온라인과학기술유한회사(新虹宝网络科技有限公司), 광둥홍바오신통공급사슬관리유한회사(广东虹宝新通供应链管理有限公司), Rainbow Ocean Agriculture Inc.(캐나다 자회사) 4개 산하 회사를 설립했다. 광둥뤄환수산유한회사는 수산물 양식(어민과 공동으로 양식함), 구매, R&D, 정밀가공 및 국내외 무역 등을 운영하고 있다. 신흥바오온라인과학기술유한회사의 경우, B2C 온라인 플랫폼을 구축하고 선신제품 마트에서 화물을 제공하고 있다. 광둥홍바오신통공급사슬관리유한회사는 중국 북부지역에서 자체 생산된 냉동수산제품의 판매 및 브랜드 홍보를 담당하고 있다. Rainbow Ocean Agriculture Inc.는 북미 수출입 업체를 위해 서비스를 제공하고 중국 수산물의 해외 수출 및 북미 산 수산물의 수입을 추진하고 있다. 회사에서 취급하고 있는 주요 품종은 흰다리새우, 베트남 블랙타이거, 아르헨티나 분홍새우, 새우살, 삶은 새우 등이다([그림3] 참조).

[그림 3] 박람회 현장사진 및 가공공장, 제품사진

박람회 부스	공장현장
	
아르헨티나 분홍새우	삶은 새우
	
흰다리새우	블랙타이거
	

자료: 광둥홍바오수산개발주식공사 홈페이지, <http://gdhongbao.com/>



CONTENTS

- ▶ 통계로 보는 중국 수산 : 2018년 중국 국가별 수산물 수입현황
- ▶ 이슈 포커스 : 중국 새우-해삼기업 성공사례 및 시사점 - 2019상하이 국제어업박람회 참가기업을 중심으로
- ▶ 동향 & 뉴스

2) 성공요인

광동홍바오회사는 몇 십 년 동안 지속적으로 발전해온 성공요인은 바로 품질관리 강화 및 혁신이라고 볼 수 있다.

광동홍바오회사는 제품품질 관리를 강화하여 대 미국 수출 수산물 HACCP(Hazard Analysis Critical Control Point)인증, 미국양식인증위원회(ACC, Aquaculture Certification Council)의 BAP(Best Aquaculture Practices) 인증 및 EU, 한국, 러시아에서 위생등록 인증을 받았으며, MSC(Marine Stewardship Council), ASC(Aquaculture Stewardship Council), BRC(British Retail Consortium) 인증을 통과했다. 이로 인해 표준화, 정보화, 자동화 수준이 높고 전문성이 강한 대하 가공 공장으로 성장했다. 또한, '2008년 베이징 올림픽 정부 지정 공급업체'로 선정되어 광동성 농어업 선도 기업으로 소비자의 신뢰를 받았다.

광동홍바오회사는 시장발전추세에 따라 중국의 내수시장 판매에서 시작하여 해외시장 진출을 거쳐서 해외 제품 수입까지 사업의 방향을 계속 혁신하고 있다. 중국 내수시장에서 실력을 키우면서 점차 일본, 한국, 캐나다, 미국 등 국제시장을 개척하였다. 2003년에 해외시장의 잠재력을 파악하고 광동위환수산유한회사를 설립하여 해외수출 및 중국 국내무역을 동시에 추진하고 있다. 그 이후 중국 내수시장이 확대되면서 신흥바오온라인과학기술유한회사를 설립하여 중국 수산물 제품을 판매하였고, 나아가 에콰도르 흰다리새우, 아르헨티나 분홍새우, 북극크릴새우, 캐나다 랍스타, 캐나다 킹크랩 등 해외 해산물을 수입하여 판매하기 시작했다. 광동홍바오회사는 시장방향에 대한 정확한 예측 및 과감한 혁신을 통해 치열한 시장경쟁에서 승리했다.

3 중국 해삼 산업현황 및 기업 성공사례

1. 중국 해삼 산업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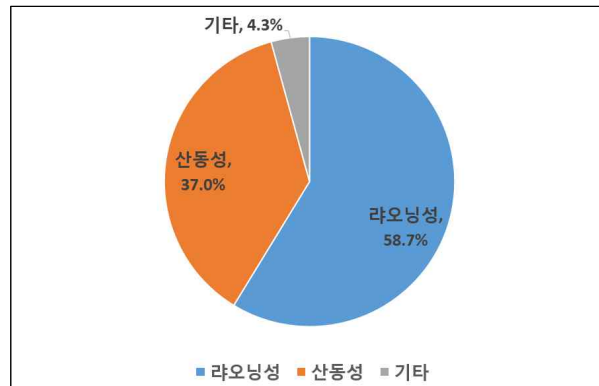
해삼은 오래전부터 건강식품으로서 면역력 제고 및 항암의 기능이 있기 때문에 인기가 많았다. 특히 최근 십 몇 년 사이에 중국에서 해삼양식 면적이 계속 확대되고, 규모의 경제 양식 산업이 형성되면서 생산량도 증가해왔다. 생산량이 증대됨에 따라 해삼의 가격이 많이 하락했고, 이에 따라 과거 프리미엄 해산물로 생각되었던 해삼은 이제 일반 소비자들도 쉽게 맛볼 수 있게 되었다. 특히 중국의 춘절(春節)같은 명절이나 결혼식 등에서는 해삼요리를 쉽게 볼 수 있다.

중국의 해삼양식 지역은 랴오닝성(辽宁省), 산둥성(山东省) 및 푸젠성(福建省)에 집중되고 있다. 2018년 중국 해삼양식 총면적이 23만 8,183ha이었는데, 랴오닝성 및 산둥성의 양식면적이 각각 13만 9,904ha 및 8만 8,116ha다. 두 지역이 중국 해삼양식 총면적에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58.7% 및 37.0%였다(그림4 참조).²⁾

CONTENTS

- ▶ 통계로 보는 중국 수산 : 2018년 중국 국가별 수산물 수입현황
- ▶ 이슈 포커스 : 중국 새우-해삼기업 성공사례 및 시사점 - 2019상하이 국제어업박람회 참가기업들 중심으로
- ▶ 동향 & 뉴스

[그림 4] 중국 해삼양식면적 분포



자료: 「2019년 중국 어업통계연감」 통계를 바탕으로 KMI 중국연구센터 작성

다롄(大连)은 해삼양식 규모가 가장 큰 랴오닝성의 해삼양식 중심지역으로 중국 해삼양식업의 발전을 이끌고 있다. 랴오닝의 해삼은 ‘랴오삼’(辽参)이라고도 부르고 있다. 국내외에서 유명한 다롄 해삼 브랜드는 방취다오(棒槌岛)해삼, 샤오친(晓芹)해삼, 창성다오(长生岛)해삼 등이 있다. 한편 산둥성의 해삼은 ‘루삼’(鲁参)이라고 부르고 있다. ‘루삼’의 양식은 칭다오(青岛), 옌타이(烟台), 웨이하이(威海) 등 지역에 있고, 대표적인 해삼브랜드는 동방해양(东方海洋), 하오당자(好当家) 등이다. 산둥성 해삼의 총생산규모는 랴오닝에 버금가는 2위 자리에 있다. 중국 남부지역의 해삼양식은 주로 푸젠성에 분포되어 있으며, 규모화 수준이 북부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족한 현황이다.³⁾

아래에서는 이번 상하이 국제 어업박람회를 참석하는 랴오닝성 및 산둥성의 대표적인 해삼기업을 소개하고자 한다.

2. 다롄 창성다오그룹(大连长生岛集团有限公司)

1) 기업 개요

다롄 창성다오그룹은 해삼 및 건강식품의 R&D, 양식, 생산, 판매, 서비스를 통합하는 해삼부문 전 산업 가치사슬 그룹이다. 그룹의 핵심브랜드인 ‘창성다오공삼4)’이 1886년에 창립되었고, 가공 공예는 중국 랴오삼(辽参) 최초의 ‘다롄시 무형문화재’로 등록되었다. 그룹의 경영이념은 ‘중화 양생문화를 계승하고 인류건강을 위해 서비스를 제공함’이다.

다롄 창성다오그룹은 계승된 가공 기술 및 현대 과학기술을 결합하여 조미 즉석해삼, 컵 해삼, 건조해삼 등 일련의 제품 등을 개발했다([그림5] 참조). 또한 완전한 자연산, 원산지에서 어획하는 해삼을 통해 소비자의 인증을 받았다. 현재까지 베이징, 상하이, 항저우(杭州), 수저우(苏州), 난징(南京), 선양(沈阳), 텐진(天津), 하얼빈(哈尔滨), 창춘(长春), 다롄(大连) 등 100여 개 도시에서 약 296 개 매장을 운영하고 있다.

2) 자료: 「2019년 중국 어업통계연감」 통계를 바탕으로 KMI 중국연구센터 작성.

3) 왕룡(王龙), “다롄 해삼양식 발전현황 및 전략”, 「내몽고 과학 및 경제」, 2019년 5월.

4) 贡参, 임금에게 진상품으로 바치는 해삼.

CONTENTS

- ▶ 통계로 보는 중국 수산 : 2018년 중국 국가별 수산물 수입현황
- ▶ 이슈 포커스 : 중국 새우-해삼기업 성공사례 및 시사점 - 2019상하이 국제어업박람회 참가기업을 중심으로
- ▶ 동향 & 뉴스

[그림 5] 박람회 현장사진 및 제품 사진



자료: 다렌 창성다오그룹 홈페이지(<http://www.dlcsd.cn/index.php?p=default>) 사진

2) 성공요인

다렌 창성다오그룹은 해삼 전 산업의 가치사슬을 통합하여 해삼의 품질 및 안전성을 확보한 것이 가장 큰 경쟁력의 원천이다.

창성다오그룹에서 생산된 해삼은 모두 북위 39°1'의 무공해 라오삼 원산지인 다렌 창산군도(长山群岛) 해역에서 생산된 5년 이상의 해삼이다. 모두 심해에서 어획되고 무공해 품질을 확보하고 있다. 가공 기술은 그룹에서 백 년 전 방법을 계승하고, 현대의 과학기술을 활용하는 방식으로 해삼의 영양 품질을 최대로 유지한다. 130여 년 동안 창성다오그룹은 품질관리를 엄격하게 지켜왔고, '유기제품인증서', '식품안전관리 시스템 인증서', '품질관리 시스템 인증서', '무공해(无公害) 농산물 원산지 인증서', '랴오닝성 농업산업화 중점 선두기업', '다렌시 무형문화재' 등 각 종 인증을 받았다. 품질안전을 확보하면서 랴오닝 해삼의 이미지 및 영향력을 강화하기 위해 글로벌 시장을 개척하고 있는 중이다.

또한 판매 네트워크의 구축을 통해 중국 전국소비자들에게 품질 좋은 해삼을 제공하고 있다. 전국에 있는 매장은 그룹에서 직접 운영하지 않고 가맹(加盟)의 형식으로 협력 파트너를 유치한다. 물론 그룹에서 제품 및 가격시스템을 엄격하게 통제하고 있다. 가맹비용을 내면 그룹에서 매장장소 선택, 매장설계, 인테리어 등을 포함하는 전면적인 지도 및 트레이닝을 제공한다. 다렌 창성다오그룹은 이처럼 품질 확보 및 판매 네트워크 확대를 통해 중국 전지역 내 브랜드 이미지를 강화하고 소비자 신뢰도를 높이고 있는데, 이것이 성공요인이 되었다.

CONTENTS

- ▶ 통계로 보는 중국 수산 : 2018년 중국 국가별 수산물 수입현황
- ▶ 이슈 포커스 : 중국 새우-해삼기업 성공사례 및 시사점 - 2019상하이 국제어업박람회 참가기업을 중심으로
- ▶ 동향 & 뉴스

3. 산둥하오당자해양발전주식회사(山东好当家海洋发展股份有限公司)

1) 기업 개요

산둥하오당자해양발전주식회사(이하 ‘하오당자회사’로 약칭)는 1993년에 설립되었고 2004년에 상하이증권거래소에서 상장했으며 주로 해수양식, 식품가공, 원양어로, 의약품 등을 경영하는 회사이다.

하오당자회사는 10만 묘(약 66.7km) 해수양식기지 및 40만m²의 종묘육성기지를 자체적 운영하고 있다. 30만 해상 종묘육성 가두리를 투입하여 해삼, 해파리, 다시마, 굴, 새우, 게, 어류, 패류 등 수산물을 양식하고 있다. 종묘육성, 양식의 통합을 통해 양식의 리스크 및 생산의 원가를 낮추고 경제수익을 증가시켰다. 또한 하오당자회사 산하의 텐하이완(天海湾) 양식목장은 ‘국가급 해양목장 시범구’, ‘중국 해수양식표준화 시범구’, ‘산둥성 해삼 양질종묘기지’ 등으로 인증을 받았다.

[그림 6] 제품 및 해양목장 사진



자료: 하오당자 티몰매장(<https://homey.tmall.com/?spm=a1z10.3-b-s.1997427721.d4918089.43da18d4kCwyhz>), 홈페이지(<http://www.sclhaodangjia.com/index.aspx>) 사진

하오당자회사에서 생산하는 냉동조리, 즉석, 통조림 등 식품은 요리 편리화, 영양성분 합리화 등의 장점이 있기 때문에, 현대사회의 생활 패턴 및 도시화 생활수요에 적합하여 많은 도시민들로 부터 선호를 받고 있다.

[표 2] 2018년 하오당자회사 주요 업무 경영 상황

단위: 백만 위안, %

업종	영업수입	영업원가	영업수입 전년대비 증가율	영업원가 전년대비 증가율
양식업	227.05	130.08	-40.07	-32.99
식품가공업	448.62	325.64	-29.70	-37.94
어획업	446.43	376.35	142.36	175.87

자료: 산둥하오당자해양발전주식유한회사, 「2018년도 보고」.



CONTENTS

- ▶ 통계로 보는 중국 수산 : 2018년 중국 국가별 수산물 수입현황
- ▶ 이슈 포커스 : 중국 새우·해삼기업 성공사례 및 시사점 - 2019상하이 국제어업박람회 참가기업을 중심으로
- ▶ 동향 & 뉴스

2) 성공요인

하오당자회사의 성공요인은 품질확보, 산업사슬 연장 및 과학기술혁신 추진에 있다.

하오당자검측센터는 하오당자회사의 산하로 식품품질, 안전 및 공장 위생의 검측을 담당하고 있다. 식품 중금속, 농약 잔류, 미생물 및 생물 독소 등에 대해 검측하고 자체 수출입식품의 검측 및 기타 위탁 검측을 맡고 있다. 하오당자회사는 엄격한 검측을 통해 제품품질을 확보하고 국내 및 국제시장에서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다.

또한 하오당자회사는 산업 가치사슬을 확장시키고 있다. 해삼의 기능을 발굴하여 기능성 식품, 건강식품 및 의약품을 개발했다. 특히 해삼 커피, 치약, 마스크 팩, 해삼 물약 등 신제품을 개발한다. 하오당자회사는 해양생물 제품을 개발하면서 산업구조를 최적화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하오당자는 해양어획 산업을 안정적으로 강화하고 있다. 중국 남해, 황해(黄海), 동해, 북태평양, 아르헨티나 등 어장에서 조업하고 원양어업의 능력을 키우고 있다.

하오당자회사의 가장 중요한 경쟁력 원천은 바로 과학기술 혁신능력이다. 2018년에 하오당자회사의 R&D 투자비용은 155만 위안을 넘었다. 중국수산과학연구원 황해수산연구소의 과학연구기지로 수질통제, 해삼종묘육성, 건강양식, 스마트 양식 등 분야에 협력계약을 체결했다.⁵⁾ 최근 몇 년 동안 하오당자회사는 해양생명과학원, 해양식품검측센터를 설립했고 중국수산과학연구원 황해수산연구소, 중국과학원 해양연구소, 산둥성 과학원, 중국해양대학교 등 국내외 20여 개 과학연구 기구 및 대학교와 협력하여 해삼 산업 가치사슬 연장, 해삼 건강식품 등 개발을 추진해왔다. 2018년까지 특허 473개를 신청·통과했고, 「건조 해삼 등급규격」 등 국가차원의 표준 및 「조미 생선구이」 등 업계표준의 작성에 참여했다.⁶⁾ 하오당자회사는 해수양식 및 해양식품가공 등 분야에서 과학기술혁신을 통해 경쟁력을 키우고 있다.

4 시사점

이번 상하이 국제 어업박람회에 참가하는 4개 중국 새우·해삼 기업사례를 통해 성공 요인을 분석하면서 중국 진출 한국 수산 기업들을 위해 다음과 같은 제언을 도출하고자 한다.

첫째, 고품질 확보를 통해 소비자의 신뢰도를 높여야 한다. 중국 소비자들이 해산물을 구매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소는 제품의 품질 및 신선도이다. 따라서 품질인증을 받은 제품이 소비자에게 더욱 신뢰감 있게 되고, 구매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산둥하오당자해양발전주식회사의 하오당자검측센터

5) 「하오당자 및 황해수산연구소는 전략적 협력계약 체결, 해양식량창고를 공동 건설」, <http://www.sdhaodangjia.com/newshow.aspx?id=1568>

6) 산둥하오당자 해양발전주식유한회사 2018년 년도보고, <http://www.sdhaodangjia.com/investor.aspx>



CONTENTS

- ▶ 통계로 보는 중국 수산 : 2018년 중국 국가별 수산물 수입현황
- ▶ 이슈 포커스 : 중국 새우-해삼기업 성공사례 및 시사점 - 2019상하이 국제어업박람회 참가기업을 중심으로
- ▶ 동향 & 뉴스

를 설립하여 제품품질 및 공장 환경을 자체적으로 검증하기 때문에 소비자에게 품질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미지를 전달하고 있다. 또한 창성다오그룹의 경우, 해삼의 고품질을 확보하기 위해 자연 수역에서 어획된 5년 이상의 해삼만을 판매하고 판매네트워크의 시스템화를 추진하고 있다.

둘째, 제품에 대한 국내외 시장동향에 대한 트렌드를 파악하고 기업의 경영 전략을 조정해야 한다. 내수시장 및 해외시장의 제품 수급동향을 파악하고 이에 따라 경영 방향을 조정해야만 치열한 경쟁에서 이겨낼 수 있다. 광둥 Blue Shrimp 해산물유한공사의 경우 해외시장에서 수요가 많았을 때 새우수출을 하는 등 해외시장에 의존 했지만, 최근 중국 내수시장의 잠재력이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내수시장에 새우를 공급하는 등 기업의 경영 방향을 전환하였고 이것이 주된 성공요인이 되었다. 따라서 계속 변하고 있는 시장 환경을 면밀히 관측하고, 이에 따라 기업의 경영 전략을 전환하는 능력을 키워야 한다.

셋째, R&D투자 확대 통해 고부가가치 수산식품을 개발하고 가치사슬을 연장시켜야 한다. 산둥하오당자해양발전주식회사는 중국 국내 대학교, 과학연구기관과 협력하여 해삼의 기능을 발굴하고 기능성 식품, 건강식품 및 의약품을 개발했다. 제품 다양화를 추진하면서 동시에 이윤을 향상시켰다. 또한, 광둥 Blue Shrimp 해산물유한공사는 소비자들의 취향에 따라 새우만두, 새우튀김, 치즈 새우 등 고부가가치 제품을 개발했다. 수산식품에 대한 R&D투자를 강화하고 가치사슬을 연장시키기 때문에 일자리 창출 및 경영 안정에도 도움이 되고 있다.

결론적으로 중국시장에 진출하는 한국기업들은 경쟁력 제고를 위해 품질제고를 통한 소비자 신뢰 확보, 중국 시장 트렌드 분석을 통한 제품 개발, R&D 확대를 통한 고부가가치 상품 개발을 위해 힘을 쏟아야 한다.



CONTENTS

- ▶ 통계로 보는 중국 수산 : 2018년 중국 국가별 수산물 수입현황
- ▶ 이슈 포커스 : 중국 새우-해삼기업 성공사례 및 시사점 - 2019상하이 국제어업박람회 참가기업을 중심으로
- ▶ 동향 & 뉴스

동향 & 뉴스

경제 · 정책

- 광저우(廣州) 29개 새로운 조치 발표를 통해 국제 해운종합 서비스 기능 강화
- 산둥성항만그룹 통합 후 웨이하이~칭다오 구간 복합연계운송 정기열차 성공적 개통
- 닝보·저우산항 컨테이너터미널 작업 시간 기준 정식 공포
- 텐진(天津) 파강(大港)해사국 정식 설립
- 선전(深圳), 선전국제해사법원 설립 추진

- 칭다오(靑島), 동북아 국제해운허브 가속화 건설 촉진
- COSCO SHIP ENGY, 상반기 순이익 4.69억 위안으로 적자탈피

해양 · 수산

- 2019 국제 섬 관광 대회에서 「세계 섬 관광 발전 보고」 발표
- 21세기 해양 실크로드 해양경제협력지수 평가 보고(2019) 전문가 심사 통과
- 저장성(浙江省)과 자연자원부, 저장성 해양과학원 공동 설립
- 하이커우(海口) 최초의 해양산업 클러스터 첨단기술산업개발구에서 설립
- 「광시좡족자치구 해역, 무인도 유효이용에 관한 실시의견」 발표
- 하이난성(海南省), 해안선 상황에 대한 조사 및 복원 전면적 추진

해운 · 항만 · 물류

- COSCO SHIPPING Development, 올해 상반기 순이익 대폭 성장
- 슈샹(數翔)과학기술, 중국 내 첫 AMRs 전장(鎮江)항에서 테스트
- 초상국항만, 프랑스 CMA CGM 항만자산 투자 협상
- 닝보·저우산항, 2만 TEU급 컨테이너선 100회 이상 기항

자세한 동향 내용은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중국연구센터 홈페이지
(<http://www.kmishanghai.org>)
<동향 분석> → <주요 뉴스>에서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 **파란색** 부분은 번역된 기사임.





CONTENTS

- ▶ 통계로 보는 중국 수산 : 2018년 중국 국가별 수산물 수입현황
- ▶ 이슈 포커스 : 중국 새우-해삼기 업 성공사례 및 시사점 - 2019상하이 국제어업박람회 참가기업을 중심으로
- ▶ 동향 & 뉴스

동향 & 뉴스

1 광저우 29개 새로운 조치 발표를 통해 국제 해운종합 서비스 기능 강화

9월 3일, 광저우시 정부는 국제해운종합 서비스 기능 강화를 위해 「광저우시 웨강아오 대만구(粤港澳大湾区)」 건설에 따른 광저우 국제 해운 종합서비스 기능 강화 방안」(이하 「방안」으로 약칭)을 발표했다. 동 방안에는 총 10개 분야, 29개 조치가 포함되어 있는데, 이 중 5가지 분야를 중점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첫째, 발전보장 강화이다. 황푸노(黄埔老)항의 전환 업그레이드는 신설 항만 건설과 연계하도록 하였다. 「방안」에서 황푸노항의 전환업그레이드에 따라 건설되는 신항만이 황포노항의 통과 능력 및 화물 처리 기능을 이어받도록 했다. 단기적으로 내항항구와 황푸(黄埔)항구의 전환 업그레이드를 중점으로 추진하여, 황푸항구의 신항만구는 기본 기능을 유지하면서 항만 계획에 따라 점차 전환 업그레이드를 촉진하도록 하였다.

「광저우항 마스터플랜 계획」을 엄격하게 시행하여 난샤(南沙)항구와 황푸항구 계획방안 조정을 추진한다. 난샤 용혈도는 광저우시 웨강아오 대만구 및 난샤자유무역항의 중점지역으로 항만 심수해안서 보호하는 것을 강화하였다. 그리고 황푸노(黄埔老)항 업그레이드 과정에서 항만 응급 기능 및 해운 문화 요소를 유지토록 하고 있다.

둘째, 해운, 항만시설 기초 인프라 건설 가속화이다. 광저우항 소형선 항로, 20만 톤급 항로, 난샤항구 정박지, 난샤항구 국제 통용 부두, 난샤항구 5기 컨테이너 부두, 효호도(小虎岛)LNG 부두 건설을 촉진하도록 하였다.

셋째, 컨테이너, 자동차 및 곡물 처리를 확대하도록 하였다. 화남지역 컨테이너 조달센터를 구축하고, 샤자이다오(沙仔岛) 자동차 종합물류산업 및 서비스 기지를 건설할 계획이다. 난샤 곡물 부두, 신사(新沙)부두, 신항 부두 등 물류 거점을 기반으로 곡물 물류단지 건설을 가속화하여 물동량 처리를 확대하도록 하였다.

넷째, 통상구 정보화 시스템을 구축한다. 난샤통상구 7일 통관 상시화 제도를 실시한다. 친환경 스마트 항만 및 통상구 정보화 건설을 가속화 추진하며, 선박 및 항만 오염 방지를 강화하는 동시에 정박지 기능 조정 및 관리를 실시하도록 하였다.

다섯째, 크루즈 및 요트 등 관광산업 발전 추진이다. 「방안」에서는 주강(珠江) 녹색 발전을 추진하여 광저우 문화 특색 관광 상품을 개발하도록 하였다. 정부는 크루즈+유람선, 크루즈+요트 등 수상 레저 관광업의 발전을 지원하도록 하였다. 주강 양안(两岸) 관광 및 광저우 수상 관광 발전 계획을 중심으로 주강 관광 자원과 크루즈·요트 등 수상 관광업 연계 발전시키도록 하였다. 그리고 자산할당 혹은 자본지분 협력 등 여러 방식을 통해 주강 관광자원과 국영주체를 통합하여, 도시 서비스 품질 및 수준을 제고하도록 하였다. 과거우(琶洲)여객터미널 등 건설을 촉진하여, 유람선 항로, 지역 고속여객선 항로, 크루즈 항로 등 종합 입체 수상 여객운송네트워크를 구축하도록 하였다. 아울러 해도 관광 상품 개발을 기반으로 광저우시 웨강아오 대만구 유람선, 크루즈, 요트, 고속여객선, 터미널 부두 등 수상 레저 관광 서비스 체계를 구축하도록 하였다.

광저우항은 광저우 국제 해운중심 건설의 중요한 요소이다. 올해 1~8월, 광저우항 화물물동량 4.15억 톤으로 전년 동기대비 9.97% 증가했고, 컨테이너 물동량 1,508만 TEU로 전년 동기대비 4.31%의 성장률을 기록했다. 그리고 1~8월, 광저우항 생산경영지표에 따르면, 화물 물동량, 컨테이너 물동량은 각각 3.84억 톤, 1,373.4만



CONTENTS

- ▶ 통계로 보는 중국 수산 : 2018년 중국 국가별 수산물 수입현황
- ▶ 이슈 포커스 : 중국 새우-해삼기 업 성공사례 및 시사점 - 2019상하이 국제어업박람회 참가기업을 중심으로
- ▶ 동향 & 뉴스

TEU로 전년 동기대비 10.4%, 8.9%를 증가했다. 수입과 이익은 각각 89.68억 위안, 16.56억 위안으로 전년 동기대비 7.4%, 10.3%를 증가했다. 이와 더불어, 올해 8월까지 광저우항은 새로운 원양항로 6개를 개척했고, 총 원양항로는 109개를 기록했다.

<자료 : 航运交易公报, 2019. 9. 04>

2 산동성항만그룹 통합 후 웨이하이-칭다오 구간 복합연계운송 정기열차 개통

9월 3일, 웨이하이(威海)-칭다오 간의 양방향 컨테이너 철도·해상 복합연계운송 정기열차가 개통되었다. 이는 산동 자유무역시범구 설립 후 개통된 첫 번째 복합운송 정기열차이자, 산동성 항만통합 후 개통된 첫 철도·해상 복합연계운송 정기열차 노선이기도 하다. 또한 산동성 항만그룹은 웨이하이-칭다오 컨테이너 항로 개통 이후 한 달 만에 ‘일체화’ 발전의 두 번째 과업을 실현하면서, 산동성 항만이 ‘일대일로’ 전략과 ‘해양경영(经略海洋)’ 전략 이행을 지원하고 ‘동·서 양방향 상호협력, 육·해 내외연동’ 개방의 신국면을 조성하도록 했다.

철도·해상 복합운송은 중국 공산당의 제19차 전국대표대회에서 제시된 교통강국 건설, 친환경 교통체계 구축의 중요한 구성 부분이다. 산동성 항만은 철도·해상 복합운송 업무 발전을 매우 중요시하여 2018년 칭다오항의 복합운송 컨테이너량은 115.4만 TEU에 달해 중국에서 유일하게 100만 TEU 를 돌파한 항만이 되었다. 웨이하이항은 최근 광저우, 베트남, 독일 등 여러 국가들과의 철도 정기편을 잇달아 개통했다.

산동성 위원회, 성정부의 통합부서에 따르면, 2019년 7월 9일 칭다오항과 웨이하이항은 일체화 개혁발전의 새로운 시기로 진입했다. 2019년 8월 6일 산동성항만그룹이 정식으로 설립되면서 산동성 항만의 개혁과 통합에 있어서 괄목할만한 성과를 보여줬다. 2019년 7월, 웨이하이항은 컨테이너량, 매출, 이익 3개 주요부문의 경영 실적지표에서 모두 전년대비 두 자리 수 증가를 실현하였고, 그 증가폭은 사상 최고를 기록하며 개혁 후 순조로운 시작을 알렸다. 8월 웨이하이에서 칭다오 ‘중창(中創) 컨테이너’ 지선항로도 순조롭게 개통되면서, 통합 전 선포했던 ‘1개의 컨테이너, 1톤의 화물도 감소하지 않는다’라는 구호 하에, 전체 운송량은 10만 TEU 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웨이하이-칭다오 구간 양방향 철도해상 복합운송 정기열차는 산동성항만그룹이 중국 정부의 ‘4감 4증(四減四增)’ 정책을 실현시킨 것이다. 또한 성 위원회, 성 정부가 추진하는 산동성 항만 일체화 발전의 중요 정책을 이행하는 것이며, 산동항만그룹 ‘3합(통합, 융합, 결합)발전’ 추진, ‘3개 강화(산동항만과 연해7개시 상무위원회, 정부 관련기구와의 협력강화, 지방 발전강화, 배후지 경제성장에 공헌 강화)’, ‘3개 만족도 제고(지방상무위원회 정부 만족도, 항만통합 파트너의 만족도, 관련 인력들의 만족도)’ 목표를 실현한 것이다.

정기열차 개통은 칭다오, 웨이하이간의 물류 통로를 한층 더 다양하게 하며, 두 항만의 물류자원 통합과 시장자원 상호보완을 효과적으로 실현했다. 동시에 산동성 자유무역시범구 칭다오지역 정책과 연결하여 칭다오항이 한층 더 많은 컨테이너 업무를 수행하도록 지원할 뿐만 아니라, 웨이하이-한국 간 컨테이너 항로를 확장하여 한국·일본 해외 화물 및 중국의 수출입기업들이 더욱 신뢰할 수 있는 안정적인 물류통로를 구축하게 되었다. 이로써 중국 기업과 한·일 기업의 협력을 강화하여 동으로는 한국 일본과, 서로는 유라시아 대륙을 연결하는 ‘동·서 양방향 상호협력, 육·해 내외연동’의 국제물류대통로를 만들어 웨이하이항이 대 한국, 일본 물류에



CONTENTS

- ▶ 통계로 보는 중국 수산 : 2018년 중국 국가별 수산물 수입현황
- ▶ 이슈 포커스 : 중국 새우-해삼기 업 성공사례 및 시사점 - 2019상하이 국제어업박람회 참가기업을 중심으로
- ▶ 동향 & 뉴스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국제물류환적허브 건설의 기반을 구축했다.

이번 정기열차 개통식에는 산둥성항만그룹의 당위원회 서기이자 회장인 휘가오웬(霍高原), 산둥성항만그룹 당위원회 부서기이자 이사 겸 칭다오항그룹 당위원회 서기이자 회장인 리펑리(李奉利), 산둥성항만그룹 당위원회 위원이자 부총경리 겸 칭다오항그룹 사장 자오광권(焦广军), 웨이하이시 위원회서기 왕루밍(王鲁明), 시위원회 부서기이자 시장 장하이보(张海波), 웨이하이시 인민대표 당위원회 주임 왕쉐원(王学文), 시정부 주석 가오쥔광(高旭光) 등의 인사가 정기열차 개통식에 참가했다. 중국철도 지난(济南)지부 그룹, 산둥항만그룹, 칭다오항그룹, 웨이하이항그룹 관련 인사와 선사 및 관련 기업 대표 모두 400여 명이 참석했다.

산둥항만그룹 당위원회 서기이자 회장인 휘가오웬은 산둥성항만그룹은 시진핑 총서기의 '세계일류 해양항만 건설의 가속화'라는 중요 정신을 착실히 수행할 것이며, 성위원회 및 성정부의 요구를 실현하고, 적극적으로 국제사회와 국가 거시 전략에 있어 새로운 역할을 수행하여 산둥성 항만이 통합에서 융합, 다시 결합의 개혁발전으로 나아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산둥성 항만이 산둥성 자유무역시범구의 송인 등의 중요한 기회를 이용하여 산둥성이 '해양강성을 건설하고 신규 역량전환을 가속화하여 견고한 발전을 거듭하며 '동서 양방향 상호협력, 육해 내외연동'을 구축, 개방의 신국면에 공헌할 것이라고 표명했다.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에 개통된 정기열차는 칭다오항 물류철도해상센터(황다오역[黃島港站])과 웨이하이 칭웨이역(青威港站)을 기종점으로 하여,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에 출발한다. 이번 정기열차는 정시성이 높으며, 기후의 영향이 덜하다는 등의 장점을 가진다. 웨이하이에서 황다오로 가는 화물은 시간이 급박하고 선박 출항 시기에 맞춰야 하는 수출화물 위주로, 주로 선박 스케줄이나 기후 등의 문제로 지선항로를 이용하기 어려운 화물들이다. 황다오에서 웨이하이로 가는 화물은 주로 자오저우(胶州), 지모(即墨), 웨이팡(潍坊) 등의 주변 기업에서 한국 평택으로 수출되는 김치, 조미료, 고추가루, 건야채, 건축자재, 일용품, 방직품 등의 화물이다. 정기열차는 20량으로 운행되며 운행시간은 5~6시간이다. 양측 항만에 도착 후 바로 부두로 인입되며, 양방향 만재 운송으로 양측의 물류비용을 감소시켰다.

<자료 : 港口圈, 2019.09.03>

3 COSCO SHIPPING Development, 올해 상반기 순이익 대폭 성장

COSCO SHIPPING Development는 2019년 상반기 영업이익은 68.68억 위안, 순이익 9.03억 위안으로 전년 동기대비 176% 성장을 기록했다고 발표했다. 6월 30일까지 상장사 주주에게 돌아가는 순이익은 235.61억 위안으로 2018년 말보다 30.6%의 증가하였으며, 순부채 비율은 2018년 말보다 122% 감소하여 채무 구조를 현저히 개선했다.

2019년 상반기 국제 정세 및 시장 형세가 복잡하고, 세계 경제 및 무역 성장 침체 상태에 빠졌지만, 복잡하고 다변화된 시장 환경에서 COSCO SHIPPING Development는 해운 업무를 기반으로 지속적인 성장을 실현했다.

해운 및 관련 산업 임대 분야에서는 규모 우위를 통해 상호 시너지 효과를 크게 나타냈다. 2019년 상반기 COSCO SHIPPING Development의 해운 및 관련 산업 임대 업무의 영업수익은 52.44억 위안으로 전년 동기대비 4.6%의 성장률을 기록했다. 그 중, 컨테이너 임대, 관리 및 마케팅 업무를 전년 동기대비 12.7%를 성장했고, 기타 산업용자 임대 수익은 전년 동기대비 8.5%를 증가하여 안정적인 상승세를 보이고



CONTENTS

- ▶ 통계로 보는 중국 수산 : 2018년 중국 국가별 수산물 수입현황
- ▶ 이슈 포커스 : 중국 새우-해삼기업 성공사례 및 시사점 - 2019상하이 국제어업박람회 참가기업을 중심으로
- ▶ 동향 & 뉴스

있다.

컨테이너 제조 분야에서는 COSCO SHIPPING은 Singamas Container사의 컨테이너 제조 자산을 인수했다. 계약에 따르면, Singamas Container는 회사 지분을 3년 안에 합리적인 사장 가격으로 COSCO SHIPPING Development에게 양도해야 한다. 이로써 COSCO SHIPPING Development는 기존 있는 생산능력 배치에 대한 보충을 실현하는 동시에 콜드 컨테이너 시장에 진입하며, 다원화 전략 배치를 실현시켜 컨테이너 제조 분야의 핵심 경쟁력을 제고시킬 것으로 관측된다.

투자 및 서비스 분야에서 COSCO SHIPPING Development는 지속적으로 투자를 최적화시켜, 산업 융합을 통해 해운 산업 및 신산업의 발전을 추진하는 동시에 다원화 투자 업무를 통해 회사 전체 수익을 제고시킬 계획이다.

2019년 상반기 국내의 시장 환경의 복잡한 국면에도 불구하고 금융감독 관리기는 여러 정책 실행을 통해 금융시장 전체적으로 안정적으로 운영하였다. COSCO SHIPPING Development는 시장 환경에 순응하고, 초단기 금융 채권 발행, 중기채 및 연장 가능 사채 등 방식을 통해 채무 구조를 개선하였다. 그리고 COSCO SHIPPING Development는 용자자원을 적극적으로 통합하고 용자방식을 혁신하며, 자금 신탁 발행을 통해 다양한 용자 경로를 발굴하여, 회사 지속 가능 발전을 촉진할 예정이다.

올해 상반기 COSCO SHIPPING Development는 A주식과 H주식 약 1.55억 주환매를 접수시켰는데 이는 총 주식수량 약 1.32%에 해당된다. 이것은 2018년 11월부터 새로운 매수청구 정책 발표한 후, 상하이와 홍콩 주식 시장 간에 최초로 매수를 발표한 것이다. 이번 매수를 통해 COSCO SHIPPING Development는 투자자 이익을 지키는 동시에 투자자에게 미래 시장 발전성을 보여주었다.

COSCO SHIPPING Development는 해운금융을 중심으로 해운물류산업의 강점을 살려 상방(Up-stream) 및 하방(Down-stream) 산업 가치 사슬을 재고하고, 시장화 체계, 차별화 우위, 국제화 시야를 기반으로 산업과 금융 결합의 ‘원스탑’ 해운금융서비스 플랫폼을 구축할 계획이다.

<자료 : 航运交易公报 , 2019. 09. 02.>

4 슈샹(数翔)과학기술, 중국 내 첫 AMRs 전장(镇江)항에서 테스트

최근 인공지능 과학기술기업인 선전슈샹(数翔)과학기술유한공사(이하 슈샹과학기술)는 전장(镇江)항 컨테이너부두에서 무인 컨테이너 전동운송차량의 테스트를 마쳤고, 반폐쇄 공간에서의 무인 구동시스템 기술과 차량관리시스템을 선보였다. 금번 테스트를 통해 슈샹과학기술은 전장시 정부와 전장항 컨테이너터미널의 전폭적인 신임과 지지를 받았다.

이번에 테스트된 무인운송차량 AMRs(Autonomous Mobile Robots)는 슈샹과학기술공사의 AMRs 제품 첫 상업화 테스트 사례이며 차량 모델은 슈샹과학기술이 자체적으로 연구개발과 설계제조를 담당했다.

AMRs와 기존의 AGV는 모두 물품을 A지점에서 B지점으로 이동시켜주지만 AMRs는 인공지능이 핵심이 된 새로운 형태의 차량으로 네비게이션 운행방식이 완전히 다르다. AMRs는 고정적으로 안내된 길을 따르지 않고 실시간으로 환경을 감지하여 즉시 경로를 다시 설정한다. 이와 동시에 안내된 경로 중 장애물이 발견되

7) A주: 상하이와 선전 증시에 상장된 중국인 전용 주식임.
H주: 홍콩 증시에 상장된 중국 기업 주식임.



CONTENTS

- ▶ 통계로 보는 중국 수산 : 2018년 중국 국가별 수산물 수입현황
- ▶ 이슈 포커스 : 중국 새우-해삼기 업 성공사례 및 시사점 - 2019상하이 국제어업박람회 참가기업을 중심으로
- ▶ 동향 & 뉴스

면 AMRs 는 자체적으로 장애물의 종류를 판단하고 피해감으로써 돌발적인 사고를 감소시켜 AGV 와 비교하였을 때 더욱 ‘스마트’하다고 할 수 있다.

슈상과학기술이 연구개발한 AMRs는 인력과 차량이 혼재한 반폐쇄 공간에서 안전하게 운행할 수 있다. 이번에 전장항이 슈상과학기술을 선택한 데는 다음과 같은 중요한 요인이 있다.

먼저 핵심기술의 향상을 들 수 있다. 항만에서의 다년간의 경험과 기술 축적을 바탕으로 슈상과학기술은 반폐쇄 공간에서의 업무에 있어 맞춤형 차량을 설계할 수 있게 되었다. 차량의 회전반경이 더욱 작아졌고, 전체적으로 기능이 향상되었으며 조작성이 정확해졌다. 또한 안정성과 정확도가 향상되어 차량 이용률은 제고되고 운영비용은 감소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다음으로 강력한 제조시스템과 글로벌 공급사슬 제조능력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이다. 공급사슬체계는 무인구동산업의 핵심 기반으로서, 중국국제해운컨테이너유한공사(CIMC)의 강력한 제조시스템과 글로벌 공급사슬에 기반하여, AMRs를 빠른 시간 내에 대량 생산을 할 수 있으며, 탄탄한 비즈니스 네트워크를 통해 전세계 고객에게 제공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슈상과학기술의 제품은 활용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동사는 항만 등 반폐쇄 공간을 전문으로 설계한 만재 무인구동플랫폼, 선진적인 모듈 설계시스템을 사용하여 운용 장소 범위가 넓고 이동비용이 낮으며 빠르게 발전하는 기술력과 공급사슬, 제조 체계를 갖추고 있다.

전장항 입장에서 AMRs의 운행은 항만운영 효율을 효과적으로 향상시키고, 노동력을 감소시키며, 운영비용이 낮아져 친환경 스마트항만 건설에 큰 역할을 할 것이다. 전장항은 중국의 주요 항만 중 하나로, 장강삼각주지역 대외개방의 주요 무역 통상구 중 하나이다. 2019년 1분기 전국 주요 항만 화물 물동량순위 자료에 따르면, 전장항 1분기 증가폭은 44.04%에 이르러 전국에서 성장이 가장 빠른 항만이 됐다. 항만의 건설과 내륙수운과 해상 복합운송, 항만-산업-도시 융합의 심화추진과 함께 전장항은 이미 ‘1억 톤급 대형항만’으로 성장했다.

금번 슈상과학기술과 전장항의 협력은 전장항 국제컨테이너터미널이 항만자동화, 인공지능 등 영역에서 대범한 시도와 결심을 했음을 보여줬다. 항만업계 관련 인사는 추후 최첨단 인공지능 신기술과 풍부한 항만자원이 상호결합하여 무인구동 등 스마트 항만영역에서 더욱 심도있고, 더욱 효과적이고, 더욱 전면적인 협력방식으로 공동으로 상호 윈-윈의 효과를 실현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자료 :港口圈, 2019.08.20.>

5 2019 국제 섬 관광 대회에서 「세계 섬 관광 발전 보고」 발표

8월 29일, 저장(浙江) 저우산(舟山)에서 개최된 2019년 국제 섬 관광 대회에서 「세계 섬 관광 발전 보고」가 발표되었다. 이번 대회는 문화 및 관광부, 절강성 인민정부 주최로 개최되었으며, 보고서는 즈후이(执惠, tripvivid.com) 문화관광 대소비 연구원이 작성하였다. 이 「보고」는 미래 신형 섬 관광 개발이 더 이상 1.0 버전의 관광 상품이 아니라, 4.0 버전의 체험형 단계로 진입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동 「보고」에 따르면, 전 세계 관광업은 최근 13년간 꾸준히 성장세를 유지하였으며, 섬 관광은 그중 중요한 한 축으로 중국 해외 여행객의 3분의 1은 해외 섬 여행이 차지하고 있으며, 현재 전 세계에 70개가 넘는 국제 유명 섬 관광지가 존재하고 있다고 밝혔다.



CONTENTS

- ▶ 통계로 보는 중국 수산 : 2018년 중국 국가별 수산물 수입현황
- ▶ 이슈 포커스 : 중국 새우-해삼기 업 성공사례 및 시사점 - 2019상하이 국제어업박람회 참가기업을 중심으로
- ▶ 동향 & 뉴스

세계적으로 40% 이상의 섬 관광 수입은 현지 GDP의 20% 이상을 차지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1차 산업 및 2차 산업의 지지기반이 부족한 자원형 섬 관광지의 경우 관광업이 현지 발전을 이끄는 주요 산업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2018년 중국 해양경제 통계공보」에 따르면, 중국 연해 관광업의 부가가치액은 1조 6,078 억 위안으로, 전년대비 8.3% 증가하여 전체 주요 해양산업의 47.8%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는 중국 섬 관광 발전의 문제점으로 투자 개발 및 운영에 있어서 '점 조직형' 개발과 무질서 운영, 전체계획과 포지셔닝 부족, 상품과 서비스 저 등급 및 동질화 경쟁, 관광 문화 발굴 미흡, 관련 종사자들의 소질 및 능력에 대한 개선 등을 꼽았다. 이와 함께 섬 관광지 개발은 섬 개발의 '단기적 대규모 투자'와 '장기적 수익 회수' 사이의 관계, 개발과 보호의 관계 등 여전히 존재하는 여러 모순 관계에 대한 개선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였다.

「보고」는 섬 관광의 미래 발전의 이념을 제시하고, 발전 추세를 예상하였다. 양질의 섬은 희소 자원으로 '유한한 풍경, 무한한 내용, 입체적 운영'이라는 모델에 따라 관광지를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미래의 새로운 섬 개발은 관광 상품일 뿐 아니라 직접 체험 관광 단계로 진입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또한 「보고」는 섬 관광의 이용자, 내용, 장면, 마케팅, 채널, 기술, 운영체제, 산업 지형 등 구체적인 운영 측면에 대해 제시하였다.

<자료 : 中国海洋报, 2019. 9. 2>

6 21세기해양실�크로드 해양경제협력지수 평가보고(2019) 전문가심사 통과

최근 자연자원부 제 1 해양연구소가 작성한 「'21세기 해양 실�크로드' 해양경제 협력 지수 평가보고(2019)」가 최근 칭다오(靑島)에서 개최된 심의회에서 전문가 심의를 통과하였다. 이 심의회에는 중국 과학기술발전연구원 과학기술 통계분석 연구소, 자연자원부 산하의 정보센터와 해양발전전략연구소, 산둥성 해양공학자문협회, 중국해양대학교의 국제관계대학과 경제대학 등의 전문가들이 심의위원들이 참여하였다. 심의회에서 연구진은 「보고」 문건에 대해 자세히 소개하였고, 심의위원들은 평가와 결의를 통해, 동 「보고」의 합리적 구조, 신뢰할만한 데이터 출처, 실행 가능한 연구방법, 명확한 표현 및 주요 연구 성과 획득에 대한 인식을 같이 하였으며, 심의 통과에 동의함과 동시에 구체적인 수정사항에 대해 건의하였다.

이 「보고」는 자연자원부 제 1 해양연구소는 2006년부터 지수 개발 연구에 착수하여 현재까지 「글로벌 블루 경제 정량적 연구」, 「'해상 실�크로드' 국가 해양 협력 지수 평가 보고 2018」 및 「국가 해양혁신 지수 보고」 등을 발간한 것으로 알려졌다.

「보고」는 '21세기 해양 실�크로드' 해양 경제 협력의 특징을 기반으로 국내외 권위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바탕으로 하여 평가지표 시스템을 구축하였으며, '벤치 마킹법'으로 2005년 ~ 2018년 중국과 '해상 실�크로드' 주변 국가 해양경제 협력 지수 점수를 측정하여 중국 해양경제 국제협력 능력을 평가하였다.

「보고」는 이 지수에 따라, 지수와 지표로 나누어 중국과 '해상 실�크로드' 주변 국가와의 해양 경제 협력 현황을 분석하였으며, 34개 샘플 국가에 대해 순위를 매겨, 권역별로 비교 분석을 실시하였다. 이 연구 성과는 일반 대중들이 중국 해양경제 국제협력의 현황 및 추세를 객관적으로 인식하는데 도움이 되며, 관리 부문 및 정부의 의사결정에 중요한 참고적 가치를 갖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자료 : 中国海洋报, 2019. 9. 4>